

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	
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			
<p>2018년 11월 1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8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</p>					
배포일시	2018. 11. 16.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		
담당과장	정석진 과장(043-870-5520) 이지혜 과장(043-719-1551)	담당자	기현중 연구관(043-870-5523) 최정윤 연구관(043-719-1594)		

**중국, 사이버보안/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**  
- 정부, WTO TBT 위원회에서 중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 정례회의(11.13~15)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였고, 그 중 5건\*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전(STC\*\*)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.
  - \* 중국 (① 네트워크안전법(사이버보안법),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③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④ 수입식품 첨부증서), 이스라엘 (⑤ 화장품 규제)
  - \*\* 특정무역현안(STC, Specific Trade Concerns) :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
-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·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, 중국,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. [상세내용 별첨]

- 1 -

□ 중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**사이버(정보)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** 미국, EU,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(3건)

- ① 은행, 통신회사, 병원 등 주요 시설의 **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**(정보보안보호등급)을 철회하여,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
  - \* 정보보호산업제품 중국수출 현황 : 1,175억원('15년) → 1,174억원('16년) → 1,308억원('17년) (2017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)
- ②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**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**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.
- ③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**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**하고,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.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, 통관에만 2~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. 이는 우리 식약처가 '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,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

□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정(3건)

- ④ 50MW급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'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여,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되었고,
- ⑤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,
- ⑥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지 확인하는 절연 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(IEC)으로 맞게 완화(2~1초)하기로 하였다.

- 2 -

- ③ 미국은 ⑦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(NFPA 780, 낙뢰보호시스템 설치)에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(18.11월)하여, 향후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- ④ 그 밖에 에너지효율,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, 유럽연합(2건), 케냐, 이집트, 아랍에미리트 등이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.
  - ⑧ 유럽연합(EU)은 우리 가전업체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(ecodesign)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,
  - ⑨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하였다.
  - ⑩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(열대 → 일반기후)하였는데, 이는 금년 6월 에어컨 수출이 중단된 후 우리 국표원이 케냐표준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.
  - ⑪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,
  - ⑫ 아랍에미리트(UAE)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(20.1월까지)함으로써,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⑬ 콜롬비아는 '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고, ⑭ 필리핀은 인증(PS 라이선스)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,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,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중 관계부처, 유관기관,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,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,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
- 아울러, 향후에도 WTO/FTA TBT 위원회 등 양자·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협의하고,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, 상대국 규제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업체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규제정책과
	기원중 연구관(☎ 043-870-5523), 최경은 연구관(☎ 043-719-1594) 또는 이보하 연구사(☎ 043-870-5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1 WTO TBT 위원회(18.11월) 계기, 협의 성과(9개국 14건)**

□ 규제 개선(11건) / 시행유예(3건)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 (기업애로)	협의결과
중국 (3건)	① 정보안보등급 관리방법	MLPS* 3급 이상 정보시스템에 해외 개발, 생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 *Mult-Level Protection Scheme (다단계보호계획)	(규제개선) 개정안(18.6.27발표) 해외제품 사용금지 조항 철회
	② 네트워크안전법	기업들이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"안전 위험이 높은" 규정에 대한 예시, 구체 사례 등을 포함한 지침서 제공 요청	(규제개선)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
	③ 의약품 통관검사	중국 의약품을 통관시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, 통관에만 2~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체 수출 어려움 발생	(규제개선)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, 이후에는 통관검사를 면제
인도 (3건)	④ 태양광 발전시스템 의무 등록 규정	태양광 모듈 제품 시험기간 과도, 인도내 공인시험소 부족으로 장시간 소요됨에 시험소 인프라 확충 요청	(규제개선) 규제시행일 연장, 제조사 자체 인증제도 도입 예정
	⑤ 태양광 모듈 시험 규격 국제표준 부합화	IEC 규격(ISO/IEC 61730)이 2016년 개정되었으나, 인도측 구버전 준용에 따른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요청	(규제개선) 2016년 최신 개정판을 준용키로 하였으며, 곧 적용 예정
	⑥ 에어컨 표준 (IS 1391-2)	에어컨 절연내력시험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정하고, 완제품 인증신청시 요구되는 부품인증과 완제품 인증 시행시기(19.6월)가 차이가 없어 WTO 통보 후 1년 6개월 이상 시행 유예 요청	(규제개선) 해당 기준에 대해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발표 예정, 발표 후 6개월 시행 준비기간 부여 예정
미국 (1건)	⑦ 낙뢰보호시스템 표준 (NEFA 780)	미국 낙뢰보호시스템 표준이 국제표준(IEC 62305)과 상이하여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요청	(규제개선) 미국 화재보험협회 표준(NEFA 780)의 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(18. 11월)
EU (2건)	⑧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	규제 시행시기, 자동전력차단 요건 및 용접접합 금지요건 삭제 등 진행현황 확인	(시행유예) 단계별 시행일 유예(2021년 이후), 용접, 접합에 대한 금지요건 삭제
	⑨ 냉장고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	영업비밀 보호, 규제 세부정보 및 라벨도안 명확화 요청	(규제개선) 기술인자 공개조항 삭제, 결과방지하터 소비전력 계산 항목 삭제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 (기업애로)	협의결과
케냐 (1건)	⑩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	에어컨 시험 온도조건 T3을 유지한다면 MEPS*를 폐지하거나 기준값 하향 요청 *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(최소에너지성능기준)	(규제개선) 우리측이 요청한 시험 조건에 대해 수용(T3→T1 변경)하여 개정함을 답변받음
이집트 (1건)	⑪ 진공청소기 라벨링 규제	비현실적인 라벨크기에 대해 제품 부착에 적합한 크기로 변경 요청	(규제개선) 제품에 부착 가능한 수준으로 라벨 크기 축소
UAE (1건)	⑫ ECAS 마크 라벨링 규정	ECAS* 마크 부착 관련 스티커 사용여부, 부착위치 등 규제 이행을 위한 명확한 정보 요청 *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(UAE 강제인증)	(시행유예) 스티커 ECAS 마크 사용유예 기한 부여 (20.1월까지), 부착 위치, 마크 축소 가능 허용 요건에 대해 답변 확인
콜롬비아 (1건)	⑬ WEEE 규제	WEEE* 규제 세부가이드 혹은 하위시행령** 발표계획 문의 및 시행유예요청 *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(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제) ** 라벨 포장 매뉴얼 관련 세부규정 생산 자유통일자 등록일자	(시행유예) 규제 시행이 현재 발표된 예정일 보다 연기될 예정이며,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.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 수렴 예정
필리핀 (1건)	⑭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개정안	수입 시 검사가 면제되던 PS 라이선스 취득제품도 선적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비용 부담-통관지연 우려	(규제개선) 한국 등 의견을 검토하여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 예정이며, 추후 제도 시행 관련 Time Table 제공 예정